

# 평화는 살림이다... “물러서야 나설 수 있어”

## 2016 평화살림콘서트 현장... 주제: ‘평화가 뭘까?’

평화(平和). 이 짧디짧은 두 글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글자 그대로 평온하고 화목한 것일까? 누군가는 평화를 ‘주변사람들과 다름 없이 화목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평화’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뜻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평화의 정의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바로 ‘꼬마평화도서관을여는사람들’과 ‘으라차차영세중립코리아’가 마련한 연간 행사 ‘평화살림콘서트’다. 3월 27일 서울 방배동 마지 2층에서 열린 올해 첫 평화살림콘서트에는 <미술관에 간 붓다> 저자인 명법 스님이 초청강사로 나와 평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명법 스님은 허먼 멜빌의 <월경사 바틀비>를 인용해 사회적 요구와 기대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주체적이고 평화로운 삶이라고 강조했다.

<월경사 바틀비>는 1980년대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월가의 한 법률 사무소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바틀비는 자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계급사회에서 고용주인 변호사에게 “I would prefer not to(하고 싶지 않다)”라며 작업 지시를 거부한다. 자본주의 위계질서에 대한 수동적인 저항이다. 그렇기에 <월경사 바틀비>는 사회구조가 낳은 불편한 현실을 낱알이 드러난 소설이다.

평화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 소설에서 명법 스님은 ‘하지 않음(無爲)’이라는 바틀비의 수동성이 갖는 미학에 주목했다. 스님은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했던 일이 많은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표현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기중심성을 느끼게 해준다”면서 “충분히 역량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이 이 상황을 만드는지 모른 채 바쁘게 뛰어간다. 그만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함’에 매여있다”며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어떤 것’으로 자기를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쓸모 있어야만 하고, ‘어떤 것’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하는 현대사회의 민낯에 대한 지적이다. 명법 스님은 “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을 하면 좋겠다’가 아닌 ‘~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가만히 있다 보면 심심함을 못 이기고 스마트폰을 켜서 게임을 하는 등 특정 행동에 자신을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 흐름 속에서 벗어나 있을 때 깊이 들여다보고 지혜를 갖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평화살림콘서트는 ‘콘서트’라는 이름에 맞게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깊은 30대 도반 조성미·양인영 씨는 직접 작곡한 찬불가 ‘기도’를 선보였다. ‘기도’는



3월 27일 서울 방배동 마지에서 열린 첫 평화살림콘서트. 소박한 공간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평화를 되새기는 이 행사는 명법 스님을 시작으로 올 말까지 다양한 초청강사들이 참여하며 이어진다.

‘하자’라고 하면 즐겁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쓸모없음이 주는 넉넉함을 돌아보게 됐다”며 “물러섬은 꼭 해야 할 때 나서서 할 수 있음이란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콘서트를 관람한 사람들은 무위(無爲)라는 평소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평화에 접근하는 게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평화라는 주제가 폭넓은 만큼 서로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좁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은희(43) 마을기업 밸류가든 대표는 “‘하지 않음’을 강조한 스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애들바등 지내왔던 시간이 평화롭지 못했던 것 같아 울컥했다”며 “마음을 비워내고 평화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송작가 출신의 이은주(49) 씨는 “소박한 곳에서 듣는 평화에 대한 정의가 새로웠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문화공연도 어우러져 좋았다”면서 “다만 대담 내용이 평화라는 주제에 맞게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는 듯한 느낌이 든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박종건(40) 씨는 “주제가 평화여서 동의를 생각하고 왔는데 내면의 평화를 다루어서 색달랐다”며 “내용 자체는 좋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유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살림콘서트는 지난해 개최된 ‘평화한 장이야기-평화머니?’를 확대한 것으로, 평화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홀수달 마지막주 일요일마다 진행되며, 앞으로 문화운동가 채현국 선생(5/29),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7/31),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이현주 한약사(9/2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저자 일진 스님(11/27)이 나설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하지 않음’에 익숙지 못한 사회 성찰 없는 행위로 자기 제한해 “사회적 요구 벗어나 나를 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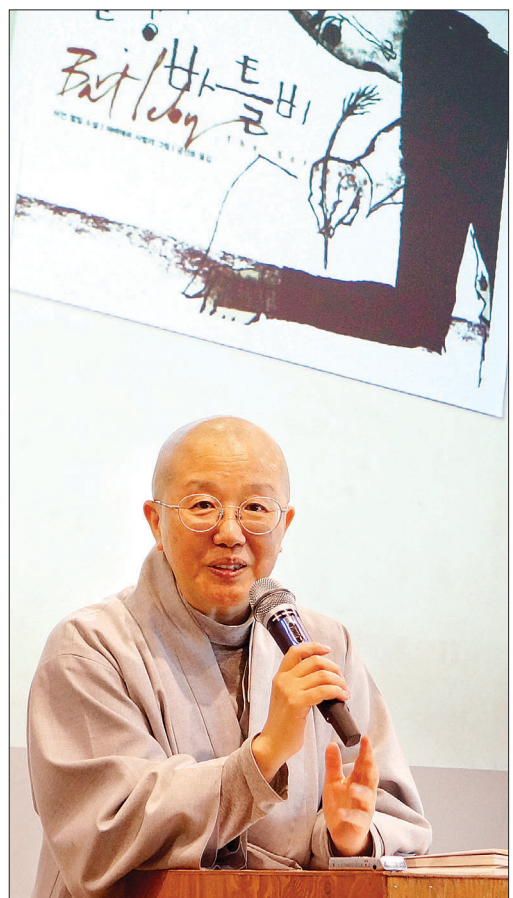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피아노와 비올라로 표현한 곡이다. 가사는 과거의 지은 죄를 참회하고, 불법(佛法)에 따라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작사·작곡을 담당한 조성미 씨는 “7년 전 정토회 100일 출가를 체험하고, 큰 감동을 받아 찬불가를 만들게 됐다”면서 “불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불교에 관심이 있어 교리공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조계사 꼬마평화도서관 개관식서 공연한 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호구아트’도 평화의 의미가 담긴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흥을 돋웠다. 이후에는 명법 스님과 농부철학자 윤구병 선생, 변택주 작가 등이 각각 평화를 주제로 한 대담을 나눴다.

윤구병 선생은 “살림에 맞서는 말은 죽임이다. 우리는 일손을 놓고 물러서 있어야 힘들어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택주 작가는 “‘되자’라고 하면 슬프고



<월경사 바틀비>를 통해 평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 명법 스님의 강연은 청중에게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조성미(건반)·양인영(비올라) 씨가 직접 작곡한 찬불가 ‘기도’를 김현진 마지 대표가 부르고 있다.



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 ‘호구아트’가 평화살림콘서트 취지에 맞춰 ‘같이 살자’는 주제로 공연하고 있다.

석가(佛)를 품은 53見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教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 (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19見 참새집	제37見 자식인연
제2見 평은 초대장	제20見 병(病)두 부처	제38見 형제 인연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39見 도반인연
제4見 차 한 잔	제22見 직거래?	제40見 부부인연
제5見 해인 심매	제23見 묘혜(妙慧)	제41見 대방광화 회엄경..
제6見 참조와 표절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42見 왕(대통령)
제7見 아부선사 웃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43見 독각(獨覺)은?
제8見 요지경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44見 <나>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11見 동시구족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12見 법맥?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48見 보시(기부)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31見 다음생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14見 윈드서핑	제32見 종(鐘)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15見 발효식품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16見 한 맛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52見 화엄경_7행시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53見 평은 축제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36見 종교와 현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에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타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 도서출판 앙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잘관리 판매중입니다